

**“내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콥트 기독교 여성 실종 잇따라... 강제 개종·결혼 의혹 확산**



이집트에서 콥트 기독교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실종된 뒤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에 내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를 일부 기독교 소녀의 가출이나 개인적 갈등으로 설명하지만, 콥트 인권단체들은 실제로는 특정 공동체를 겨냥한 납치와 강제 이슬람화가 오랜 기간 반복돼 왔다고 주장한다.

콥트교는 이집트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기독교 공동체로, 이슬람 정복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이후 지속적인 박해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수십 년간 젊은 여성들의 실종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적된다.

2012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2011년 혁명 이후 콥트 여성 납치 증가가 언급된 바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많은 사건이 신고되지 않거나 당국에 의해 묵살된다고 말한다. 가족들이 보복과 낙인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항의할 경우 오히려 압박을 받는 사례도 제기됐다.

납치 수법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근과 심리적 조작, 이른바 ‘그루밍’ 방식이 늘고 있다. 표적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이며,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납치 후 이슬람 복장을 하고 등장해 가족을 비난하거나 자발적 개종과 결혼을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를 강요된 연출로 보고 있다. 또한 성적 착취와 협박이 동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서상 개종이 신속히 처리되거나 강제로 서명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으며, 이후 피해자들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해자 처벌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위협과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종교적 공로 의식이나 경제적 이유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물론 모든 사례가 강제 납치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단순한 자발적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입장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시편 40:13-14,17)**

하나님, 이집트에서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에 내몰린 콥트 기독교 여성들을 주의 손에 의탁 드리며 기도합니다. 10-20대 여성들을 납치해 성적 착취와 협박으로 강제 이슬람화 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물러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는 콥트교 여성들의 도움이시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악한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집트 교회들이 이 때에 더욱 주를 경외하며 부르짖게 하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로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중국, 친자녀 5명 상습 매매한 부부 실형

약 6년 동안 친자녀 5명을 반복적으로 매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국의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뉴시스가 현지매체 지무뉴스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사례를 공개하며 해당 판결을 포함했다. 피고인 리 모 씨와 그의 아내 장 모 씨는 이미 자녀가 여럿 있었으며, 영유아 매매를 목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녀 5명을 출산 직후 잇따라 타인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챙긴 돈은 총 47만 위안(약 1억 289만 원)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친자녀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처럼 거래한 중대한 아동 인신매매 범죄라고 판단했다. 범행을 주도한 남편 리 씨에게는 징역 11년 6개월과 벌금 6만 위안(약 1,313만 원)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인정된 아내 장 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만 위안(약 656만 원)의 실형이 내려졌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이사야 31:6)

하나님,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친자녀들을 부당한 이익과 맞바꾼 부모의 소식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상품처럼 거래하며 주를 심히 거역했던 저들의 죄 됨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신 이때, 그들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더욱 붙들게 하소서. 중국의 교회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더욱 외쳐 주를 반역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 ▲ 리비아, 유럽 향하던 리비아 난민선 전복... 지중해서 최소 70명 실종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전복돼 최소 70명이 실종됐다고 6일 뉴스1이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난민선은 4일 리비아 타주라 항구를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앞바다에서 침수돼 뒤집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 대변인 필리포 운가로는 경량 보트에 탑승했던 승객 가운데 약 7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주재 국제이주기구(IOM) 대변인은 당시 선박에 최대 120명의 이주민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32명이 구조됐으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집트 출신으로 확인됐다. 생존자들은 높은 파도와 악천후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구조된 이들은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의해 람페두사섬으로 이송됐으며 시신 2구도 함께 발견됐다. IOM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중해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주민은 3만 3,450명이 넘었다. 올해 실종된 인원은 최소 725명에 달하며 지난 2월에도 리비아 인근 해상에서 최소 53명이 죽거나 실종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시편 107:6-8)

하나님,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전복되었다는 소식 앞에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이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옵소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들에게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신들이 꿈꾸는 성공이 아니라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존엄한 죽음’ 법안 논란... 복음주의 연맹 “안락사 길 열 수 있어” 우려**



코스타리카에서 이른바 ‘존엄한 죽음’ 법안을 둘러싸고 복음주의 진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가 최근 전했다. 코스타리카 복음주의 연맹(FAE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생명 종결과 관련된 판단에 있어 취약한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맹은 법안에 법적·윤리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생명 유지 치료 중단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3자가 환자의 임종 시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말기 환자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일부 표현이 모호해 안락사나 조력자살과 유사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진이 ‘연민(compassion)’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맹은 이 표현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완화의료 범위를 벗어난 치료 중단까지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료 거부’ 개념 역시 과도한 연명치료 중단과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 돌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법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절차, 독립적인 감독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학적 관점에서 연맹은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건강 상태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 삶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통을 이유로 생명을 종결하는 선택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해당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보완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가 차원의 완화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 관리와 심리·영적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기도 24:365본부 종합).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6-7)**

하나님, 존엄한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생명을 죽이는 코스타리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악한 자들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폐지되어 이 땅의 영혼들이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연민과 어려움, 당장의 고통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 안에서 긍휼과 구원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대만, “중국, 1분기 사이버공격 1억 7,000만여 회”… 지방선거 개입 우려

대만 정보기관이 올해 1분기 중국의 사이버공격이 1억 7,000만여 회에 달했다고 주장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대만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의 ‘국가정보업무 및 NSB 업무 보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분기 대만 정부 서비스 네트워크(GSN)를 상대로 1억 7,328만 회 사이버공격을 시도했다. 대만 측은 중국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만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작업과 동시에 정보 수집, 모니터링, 정보 탈취 등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허위 메시지 확산과 가짜 여론 조사 결과 발표 등 복합적 정보전 가능성을 경고했다. NSB는 올해 1분기 대만의 여론 조작 시도와 관련된 의심 계정 1만 3,696개와 논란성 메시지 86만 369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하나님,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위협가운데 있는 대만의 소식을 듣고 주께 간구합니다. 악을 행하여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거짓들을 드러내사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게 하소서. 무엇보다 허위 메시지와 여론 조작처럼 우리를 속여 죄의 종 노릇하게 했던 사탄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공의만이 대만 땅에 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사람에게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 ▲ 미국, 뉴욕시장 관저 앞 폭탄투척 10대들 “최대 60명 살해 노렸다”

미국 뉴욕에서 10대 남성 두 명이 사제 폭탄을 이용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노린 사건의 전말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현지 언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이들이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에 영향을 받아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맨해튼의 그레이시 맨션 인근에서 시위대를 겨냥해 폭탄을 투척했으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건 전 이동 과정에서 공격 방식과 점화 시점, 투척 방법, 도주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혼잡한 상황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차량 내부에 녹음된 대화에서는 “테러를 시작하고 싶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싶다”는 발언이 확인돼 공포를 조성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개인 기록과 메모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며 과격인식이 확인됐고, 범행 이후에도 극단적 메시지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폭발물 제조와 사용을 시도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모와 테러단체 지원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출처: 기도24·365본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에스겔 33:11)**

하나님, 미국에서 폭탄 테러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청소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세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삼는 사탄의 모든 악한 계락을 파하여 주소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소서. 또한 미국의 모든 다음세대가 주께 자신을 드리며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걸프 해역 선원 2만여 명 전쟁 속 무방비 노출... 선원선교회, 세계 교회에 기도 요청



걸프 해역, 특히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선박 위에 고립된 선원들이 미사일과 요격이 오가는 하늘 아래서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 속에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선교회(Mission to Seafarers)는 이 지역에서 수만 명의 선원들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단체 사무총장인 피터 라우치는 후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선원들은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바다 위에서 전쟁을 견디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단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3천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 2만 명 이상의 선원이 해당 해역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이들은 폭발 위험이 있는 화물을 실은 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피’나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장기적인 탈진과 불안, 식욕 저하, 정신적 회복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기존의 고립감 역시 전쟁 상황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1836년 브리스톨 해협 선교회(Bristol Channel Mission)로 시작된 선원선교회는 현재 50개국 200여 항구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기반 선원 복지단체로, 선박 방문과 교통 지원, 긴급 구호, 영적 돌봄 등을 통해 선원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안 상황 악화로 현장 접근이 크게 제한되면서 직접적인 대면 돌봄 대신 전화나 메시지에 의존하는 상황이 어지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취약한 선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간적인 접촉이 줄어들며 돌봄의 깊이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189만 명의 선원이 이를 떠받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107:28,30)**

하나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수많은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의 여파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영혼들의 탄식에 응답하사, 전능하신 주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히려 이 환난의 때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인도, 라자스탄 기독교 학교 인가 취소… 300여 명 학생 전학 통보

인도 라자스탄주 등가르푸르 지역의 기독교계 세인트폴 학교가 힌두 극단주의 단체들의 표적이 된 가운데, 최근 당국이 학교 운영 인가를 취소했다. 국제크리스천컨선에는 따르면 이 학교는 2025년 9월부터 압박을 받아왔으며, 이는 주정부의 개종금지법 추진 시기와 맞물린다. 지난해 말 시위 이후 교육 당국은 위생 문제와 학생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기숙사 폐쇄를 명령해 200명 이상이 수업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 1-8학년 인가를 최종 취소해 300여 명의 학생들이 전학 통보를 받았다. 당국은 학교를 공식 등록 시스템에서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종교 강요 의혹을 제기했으나, 시민정의평화는 이를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조직적 압박으로 보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사도행전 4:18-20)**

하나님, 개종금지법을 근거로 자녀들을 말씀안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정부의 핍박으로 인도의 다음세대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음을 돌아봐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인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소서. 그리하여 인도의 자녀세대가 복음 안에서 양육 받아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 ▲ 아이티, 대선·총선 또 연기… 갱단 폭력 속 10년째 선거 공백

아이티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됐던 대통령선거와 총선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갱단 폭력과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한 번도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이티 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권자 명부 등록과 후보자 접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 명령 공포가 늦어진 데다, 무장 갱단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대부분을 장악하고 중부·농촌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면서 정상적인 선거 준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브 앙삼'이라는 갱단 연합체는 납치·살인·성폭행 등 극단적 폭력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갱단 구성원의 절반가량이 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라고 전해졌다. 극심한 빈곤 속에 아이들까지 갱단에 유입되면서, 아이티의 치안 붕괴와 민주주의 공백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에스겔 36:9,11)**

하나님, 갱단이 그 세력을 넓히며 온갖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운 아이티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간구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갱단에 유입시킬뿐 아니라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갱단이 파훼되게 하시고, 그 배후의 사탄을 멸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아이티와 함께 하사 그들을 처음보다 낮게 대우해주시고, 아이티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케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